

로컬푸드 직매장 조감도 ▶



파프리카 선별작업으로 분주한 농산물 수출 물류센터(위)와 농촌 교육농장인 백운요 도자기만들기 체험.

농업 6차산업 육성 '올인'... 4년간 500억 투입

광양시가 지난 2월 '농산물 마케팅과'를 신설하는 등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500여억원을 지원해 6차산업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시는 경쟁력을 갖춘 품종으로 농·어촌을 실현하기 위해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거센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인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이고 검증된 사업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 직불금·유기질비료·상자도·농기계 등 직접적인 지원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등 농업 시설 개선에 투자를 지속해 왔다. 하지만 생산위주의 정책으로는 농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책을 이번엔 내놓은 것이다. 이에 민선 6기는 생산과 연계한 가공·유통·판매·관광 등을 융·복합한 6차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광양 매실청 청소년에 지원=우선 '마케팅 분야'는 2018년까지 7개 사업에 연차적으로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산자단체 중심 조직화와 경영능력 강화 ▲유통 전문·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농·특산물 유통사업단 재정비 및 활성화 ▲맞춤형

광양시 '농산물 마케팅과' 신설·로컬푸드 직매장 내달 오픈

생산부터 유통·관광까지 융합해 농가 소득 창출 적극 지원

농산물 마케팅 강화를 위한 마인드교육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와 판촉 ▲온라인 활동 확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확대를 추진한다. '농식품 가공분야'는 소비자의 구매 유발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얼굴인 포장재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매실농가(422호)에 매실 발효용기를 보급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식품 가공업체에 위생 발효시설, 유기농식품 인종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들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피로회복으로 건강 및 학업능력 증진을 위해 광양 매실청 14을 관내 51개 초·중·고등학교 학생 2만835명에게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

또한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농식품 가공산업 참여를 위해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새로운 가공 창업 매뉴얼을 확립하는 등 농식품 가공 활성화를 위해 20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 최대 로컬푸드 매장 5월 개장='농산물유통 분야'는 16개 사업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먼저 광양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고 수확기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 공동선별 및 선별기,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농산물 공동브랜드 통합박스, 신선도 유지 포장재 등을 지원한다.

또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우수농산물 관리(GAP) 인증면적(208ha) 확대를 위한 농가교육, 인증신청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등에 투자한다.

특히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판로확보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광양원예농협에 전남최대 규모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해 오는 5월 중 오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 등에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확충 등을 통해 광양 농산물의 지속적인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농협 단위의 소규모 산지 유통조직을 '광양시 연합사업단' 마케팅 조직으로 통합하고, 공동 선별 및 마케팅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매실을 비롯한 파프리카, 애호박, 양상추, 감, 토마토 등의 지역 대표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로 확대에 시황을 끌고 있다.

시는 '6차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선도농가육성 시범사업(8농가) ▲환경개선 및 마케팅 등 10개 사업장 조성 ▲산업 수익모델사업 ▲체험농장 시범사업 등 8개 사업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 여성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우리읍시 연구회(1996년 조직), 차 연구회(2002년 조직), 웃 연구회(1998년 조직), 6차산업 연구회(2015년 조직) 등 지역의 선도농업인을 집중 육성한다.

광양시 임영주 부시장은 "도시 소비자의 욕구에 맞게 생산에서 가공·유통·관광까지 연계한 창조적인 6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프라 구축에 농업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애호박 농가-육묘업체 진실 공방

"불량 종자 공급으로 3억 피해"..."제대로 공급"

광양지역 애호박 농가와 모종을 공급한 육묘업체 간에 진실공방이 일고 있다. 농가들은 업체에 주문한 종자와 다른 모종이 공급돼 수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육묘업체는 제대로 공급했다고 맞서고 있다.

9일 광양 진상농협과 진상 원예작목회에 따르면 농가들은 지난해 10월께 나주의 한 육묘장에서 매년 재배해오던 '농협 애호박' 품종 모종 13만7000여주를 받아 재배했다.

하지만 작목회 16 농가에서 재배한 애호박은 병치레가 심하고 자라는 모양새도 달랐다. 수확량도 기존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추위에도 약해 겨울철에 시설하우스내 온도를 예년에 비해 2~3도 더 높인 까닭에 난병비도 많이 들었다.

농가들은 "애호박 모종을 아주심기한 후 40일째부터 수확에 들어갔는데 애호박 꼭지부분이 쉽게 짓무르는 등 매년 재배하던 종자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이 40~50% 감소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원예작목회 농가들은 애호박 조직 샘플을 채취해 농협종묘에 유전자 검사해 의뢰한 결과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가 애호박이 '농협 애호박'과 유전자(DNA)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큰 16 농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까지 총 5만9730㎡(1만8100평)에서 유류대 추가 비용과 수확감소에 따른 손해 등으로 3억여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백순선 원예작목회장은 "작목회원들은 수년간 애호박 재배를 해와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다"며 "당초 주문하지 않은 종자가 공급돼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급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호박 모종을 공급한 육묘장 측은 "정상적인 농협 품종을 공급했으며 병충해는 지난 가을장마의 영향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도선국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단계 완료

광양시 '도선국사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

광양시는 9일 옥룡면 추산리 현지에서 한옥형 도·농 교류센터인 '백운산 프리자'와 '농림축산물 직매장' 개장식을 가졌다. '백운산 프리자'는 연면적 500.4㎡ 규모의 한옥형 도·농 교류센터이다. 다목적 강의실을 비롯해 회의실, 정보화실, 숙박동, 족구장, 풋살경기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갖춰 방문객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또 '농림축산물 직매장'은 연면적 654.7㎡ 규모로, 권역 140여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해 직접 운영하게 된다. 시설을 운

영하게 되는 '도선국사 권역 운영위원회'는 휴양마을과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을 위해 인성지도사, 체험지도사 과정을 수료했다.

광양시는 지난 2010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70여억 원을 투입해 옥룡면 동곡, 죽천, 추산리 일원을 대상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엔 42억원이 투입된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사업으로 28억 원을 투입해 마을주차장 조성과 산책로 정비 등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경찰,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반딧불 사업' 추진

광양경찰서(서장 정재윤)와 광양 지역농협이 함께 농촌지역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반딧불 사업'을 추진한다.

'반딧불 사업'은 전체 사망사고의 40%에 달하는 노인 보행자 사망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신발 뒤꿈치에 가로 4cm·세로 2cm 크기의 형광반사지를 부착하는 사업이다. 광양경찰청은 농협과 손잡고 1만 매의 형광

반사지를 제작해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 배부해 노인복지관과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며 반사지 부착과 교통사고 예방 홍보에 나섰다.

정재윤 서장은 "지역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한 후 어린이들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3년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이웃은 광주일보사가 발행하는 문화예술계잡입니다.

지방지사 (061)		시내지역	
광신	0621944-0444	남원시	0631626-1601
군산시	0631467-2500	순창군	0631653-0444
장흥시	0631531-5544	서문보급소	021313-5962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